

《六一詩話》의 詩歌 引用 樣相

류 소 진*

〈目次〉

I. 서론	IV. 逸詩 보존 양상
II. 창작시기별 인용 양상	V. 결론
III. 詩句의 부분 인용 양상	

I. 서론

詩話는 북송 이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한 記事類와 詩歌批評類 저작의 특징을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서사적 요소와 비평적 요소를 겸비한 특수한 문학 양식이다. 그런데 초기 시화는 후대 시화와 달리 비평적 성격보다 서사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얼핏 보면 잡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따라서 시화 연구자들이 초기 시화에 큰 의의와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초기 시화에는 그 나름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 초기 시화는 엄격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일기를 쓰듯이 혹은 비망록을 쓰듯이 한 토막 한 토막 이야기를 써 나가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문인들로 하여금 마치 담소를 하듯 가볍고 자유롭게 시를 비평하고 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비평의 일상화를 가능하게 했고 그것은 다시 시가비평의 활성화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또한 초기 시화 속의 수많은 記事는 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존하고 있어 일차적으로 시학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문화 연구를 위한 자료와 언어학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시화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전해지지 못하고 유구한 역사 속에 묻혀 버렸을 무명 시인들의 詩句가 초기 시화 안에 많이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기 시화 가운데 구양수가 저술한 《六一詩話》¹⁾는 서술 동기를 천명한 序頭와 빼어난 詩句나 詩壇의 일화를 소개한 스물여덟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물여덟 가지의 이야기 가운데 스물여섯 가지는 唐宋 시인의 시구를 인용하여 그 시구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시단의 일화를 소개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시구 인용 없이 시단의 일화만 소개했다. 본고는 여러 각도에서 《육일시화》의 詩歌 인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시화의 효시인 《육일시화》의 양식적 특성의 일면과 逸詩 보존이라는 문학사적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II. 창작시기별 인용 양상

구양수가 《육일시화》에 인용한 시의 인용빈도를 창작시기별로 살펴보면 宋代의 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唐代의 시가 많으며 五代의 시가 1회 인용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인별 인용빈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²⁾

- 1) 歐陽修가 저술한 詩話는 원래 그의 문집인 《文忠集》 卷128에 〈詩話〉라는 篇名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다른 시화와 구분하기 쉽도록 흔히 ‘六一詩話’라고 부르는데, 四庫全書 集部 詩文評類에 《文忠集》 중의 〈詩話〉와는 별도로 《六一詩話》라는 독립된 書名으로도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六一詩話》라는 서명을 쓰기로 한다.
- 2)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육일시화》의 시가 인용 양상에 관한 각종 통계는 필자가 四庫全書를 검색하여 확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창작시기	시 인	인용 빈도
唐	李白(701~762)	1
	杜甫(712~770)	1
	張繼 ³⁾ (753 전후)	1
	嚴維(756 전후)	1
	孟郊(751~814)	2
	韓愈(768~824)	1
	王建(768~835)	2
	賈島(779~843)	7
	姚合(?~855)	1
	溫庭筠(812?~866?)	1
	周朴(?~878)	2
	貫休 ⁴⁾ (832~912)	1
	鄭谷 ⁵⁾ (848~909)	1
	소계	22
五代	陶穀 ⁶⁾ (903~970)	1
	소계	1

- 3) 《육일시화》 제18조에 “고소대 밑에 있는 한산사에서, 한밤중의 종소리가 객선까지 들려 온다(姑蘇臺下寒山寺, 半夜鐘聲到客船)”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구양수는 이 시의 작자와 제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唐人 高仲武의 《中興間氣集》 卷下에 이 시가 張繼의 〈楓橋夜泊〉인 것으로 되어 있다.
- 4) 《육일시화》 제15조에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없더니, 저절로 찾아오는 때도 있구나(盡日覓不得, 有時還自來)”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구양수는 이 시의 제목을 〈시 읊는 사람(詠詩者)〉이라고 해 놓고 작자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宋人 李燾이 편찬한 《唐僧弘秀集》 卷6에는 貫休(832~912)의 〈시 읊기(詠吟)〉로 되어 있는바, 관휴는 唐代(618~907)에서 五代(907~960)까지 살았지만 대부분의 생애가 당대에 속하기 때문에 唐人으로 쳤다.
- 5) 鄭谷(848~909) 역시 唐代에서 五代까지 살았지만 대부분의 생애가 당대에 속하기 때문에 唐人으로 쳤다.
- 6) 陶穀(903~970)은 唐代에 태어나 五代를 거쳐 宋代(960~1279) 초기까지 살았지만 대부분의 생애가 五代에 속하기 때문에 五代人으로 쳤다.

창작시기	시 인	인용 빈도
宋	李昉(925~996)	1
	呂蒙正(944~1011)	1
	鄭文寶(953~1013)	1
	宇昭 ⁷⁾ (975 전후)	1
	希晝 ⁸⁾ (?~?)	1
	劉筠(971~1031)	2
	錢惟演(977~1034)	1
	石延年(994~1041)	1
	宋祁(998~1061)	1
	梅堯臣(1002~1060)	3
	謝伯初(1024 전후)	5
	歐陽修(1007~1072)	2
	蘇舜欽(1008~1048)	1
	趙師民(1038 전후)	2
	王操 ⁹⁾ (?~?)	1
	작자 미상 ¹⁰⁾	5
	소계	29
시대 미상 ¹¹⁾	작자 미상	1
	소계	1
합 계		53

- 7) 《육일시화》 제9조에 “말은 항복해 온 땅에 놓여 있고, 독수리는 전쟁이 끝난 뒤의 구름 속에 빙빙 돈다(馬放降來地, 鷗盤戰後雲)”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 시의 작자에 대하여 구양수는 막연하게 九僧 가운데 한 사람의 시라고만 밝혀 놓았다. 그러나 元人 方回的 《瀛奎律髓》 卷30과 明人 釋正勉 등의 《古今禪藻集》 卷10에 모두 작자가 구송 중의 한 사람인 宇昭라고 되어 있고 제목이 〈변새에서 왕태위께 드리다(塞上贈王太尉)〉라고 되어 있다.
- 8) 《육일시화》 제9조에 “봄은 계령 밖에서 생기고, 사람은 해문의 서쪽에 있다(春生桂嶺外, 人在海門西)”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구양수는 작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古今禪藻集》 卷10에 구송 가운데 한 사람인 希晝의 〈광남 전운사 진학사를 그리다(懷廣南轉運陳學士)〉로 되어 있다.
- 9) 《육일시화》 제18조에 “소매에 간인의 초고를 넣고 천자를 비러 갔다, 머리

위의 표를 보면 당대 시인의 시가 22회, 오대 시인의 시가 1회, 송대 시인의 시가 29회 인용되어 있고, 그 밖에 당송대로 추정되나 어느 시대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시인의 시도 1회 인용되어 있다. 《全唐詩》에는 당대 시인 2,200여 명의 시가 수록되어 있고,¹²⁾ 《全宋詩》에 수록되어 있는 송대의 시인들 가운데 구양수 이전 사람은 모두 926명¹³⁾으로 당대 시인의 수가 훨씬 더 많으며, 구양수가 唐詩를 경시한 것도 아닌데,¹⁴⁾ 《육

에 궁중의 꽃을 꺾은 채 시연하고 돌아오네(袖中諫草朝天去, 頭上宮花侍宴歸)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구양수는 작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宋人 呂祖謙의 《宋文鑑》 卷24, 宋人 陳思의 《兩宋名賢小集》 卷6, 淸人 陳焯의 《宋元詩會》 卷1 등 후대에 편찬된 각종 시집에 宋人 王操의 <이방 상공께 올리다(上李昉相公)>로 되어 있고, ‘간언의 초고(諫草)’가 ‘조서의 초고(詔草)’로 되어 있다(文淵閣四庫全書本 참조). ‘조서의 초고(詔草)’는 구양수의 지적을 받은 뒤에 수정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10) 문맥상 송대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이다.
- 11) 《육일시화》 제12조에 “고을이 오래되어 왜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관리가 청렴하여 말의 뼈가 앙상하다(縣古槐根出, 官淸馬骨高)”라는 시구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宋人 呂陶가 자신의 시 <금당에 들렀더니 우연히 옛날 시가 기억나는지라 이를 계기로 우문 현령에게 드리다(過金堂偶記舊詩因贈宇文縣宰)>에 그대로 차용하여 “고을이 오래되어 왜나무 뿌리가 드러났다는 말 들었나니, 관리가 청렴하여 말의 뼈가 앙상한 게 가장 좋네(嘗聞縣古槐根出, 最愛官淸馬骨高)”라고 했을 정도로 인구에 회자한 구절이다. 구양수는 이 시의 작자를 밝히지 않았는데 淸人 李東陽의 《懷麓堂詩話》에는 “송나라 구승의 시 중에 ‘고을이 오래되어 왜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관리가 청렴하여 말의 뼈가 앙상하다’라는 구절이 있다(宋九僧詩有曰: ‘縣古槐根出, 官淸馬骨高. ’)”라고 하여 송나라 九僧 가운데 한 사람의 시라고 하고, 淸人 劉於義 등의 《陝西通志》 卷98에는 《同官志》를 근거로 杜甫의 시라고 했으며, 송나라 무명씨의 《翰苑新書前集》 卷58과 元人 富大用的 《古今事文類聚合集》 卷14에는 韓駒父의 시라고 하고, 宋人 嚴粲의 《詩緝》 卷19에는 막연하게 唐人의 시라고 하여 누구의 시인지는 물론 어느 시대 사람의 시인지도 확정할 수가 없다.
- 12) <御製全唐詩序> 참조.
- 13) 《全宋詩》(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編, 北京大學出版社, 1991)에 의거하여 필자가 직접 헤아린 것이다.
- 14) 구양수는 《육일시화》 제23조에서 謝伯初의 시를 칭송하여 “경산의 시는 매우 많은데……모두 당나라 때의 저명인사들에게 뒤지지 않는다.(景山詩頗多……皆無媿於唐諸賢)”라고 했으니 이는 唐詩의 우수성을 인정한 예이다.

일시화》에 인용된 시 가운데 송대 시인의 시가 당대 시인의 시보다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후세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한담 거리’가 시간적으로 자신에게서 먼 당대보다 자신에게 가까운 송대에 더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구양수는 《육일시화》 서두에서 스스로 저술 동기를 천명하여 이렇게 말했다.

거사가 은퇴한 후 여음(汝陰)에 거주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모아 한담 거리를 제공한다.¹⁵⁾

구양수는 스스로 후일에 한담 거리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육일시화》를 저술한다고 했거니와, 이것이 바로 《육일시화》에 약 300년에 달하는 당대 전체 시인의 시보다 약 100년 밖에 안 되는 송대 초기 시인의 시가 더 많이 인용된 이유일 것이다. 자신과 같은 시대이거나 가까운 시대일수록 더 많은 관심을 끌 것이고 따라서 시단의 화제가 되는 시나 시인이 많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인데, 《육일시화》에 구양수와 가까이 지낸 梅堯臣·謝伯初 등 송대 초기 시인의 시가 많이 인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육일시화》 제4조를 보자.

梅聖俞가 한번은 范希文이 마련한 자리에서 <복어(河豚魚)>라는 시를 지어 “봄철의 모래톱에 갈대 싹 나고, 봄을 맞은 강언덕에 버들개지가 나네. 복어는 이때가 되면, 귀해져서 물고기나 새우는 치지도 않네(春洲生荻芽, 春岸飛楊花, 河豚當是時, 貴不數魚鰕)”라고 했다. 복어는 언제나 늦은 봄에 나와 물 위에서 떼를 지어 헤엄치다가 버들개지를 먹고 살핀다. 남방 사람들은 대개 갈대 싹과 함께 국을 끓이고는 맛이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므로 시를 아는 사람들은 첫머리 두 구절만으로 이미 복어의 장점을 다 말했다고들 한다. 매성유는 평생 시 읊기에 고심했는데 한적하고 심원한 것과 예스럽고 담박한 것을 詩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를 구상하는 것이

15) 居士退居汝陰, 而集以資閑談也。(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序頭)

지극히 힘들었다. 이 시는 술자리에서 지어졌지만 필력이 웅건하고 넉넉하며,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절창이 되었다.¹⁶⁾

위의 이야기는 <요주지주 범씨가 마련한 자리에서 손님들이 복어 먹은 일을 이야기하다(范饒州坐中客語食河豚魚)>¹⁷⁾의 창작배경과 우수성을 말한 것이다. 구양수가 이 시의 창작배경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매요신을 통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시 문인들 사이에 널리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 구양수가 이야기의 소재로 삼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구양수는 당대 이전의 시를 전혀 인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대 중에서도 초당 시인의 시는 인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당의 경우 李白의 시와 杜甫의 시를 각각 1회씩 인용했을 뿐인데다, 그것도 구양수 당시의 시단 상황과 관련지어서 인용했다. 제17조를 통해서 이백의 시가 인용된 양상을 살펴보자.

李白의 <두보를 희롱하다(戲杜甫)>에 “헤어진 뒤 왜 이렇게 여위었나요? 다 옛날에 시 짓느라 힘든 탓이겠군요(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라고 했거니와, ‘太瘦生’은 당나라 사람들의 말인데 오늘날에 이르도록 아직까지 ‘生’을 어조사로 쓴다. 예를 들면, ‘作麼生’·‘何似生’ 같은 것이 그 예이다. 尚書 陶穀이 일찍이 “챙이 뾰족한 모자를 쓴 미친한 놈, 목이 짧은 가죽신 신은 ‘말괄한 병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 ‘末蹶’ 역시 당시의 말이다. 나는 천성(1023~1032)·경우(1034~1038) 연간에 이미 이 구절을 들었거니와 당시는 陶公(陶穀)의 시대로부터 아직 멀지 않았건만 사람들이 다들 그 뜻을 알지 못했다. 王原叔은 박식하고 견문이 넓어서 세상 사람들

16) 梅聖俞嘗於范希文席上賦<河豚魚>詩云：“春洲生荻芽，春岸飛楊花。河豚當是時，貴不數魚蝦。”河豚常出於春暮，羣遊水上，食絮而肥。南人多與荻芽爲羹，云最美。故知詩者謂祗破題兩句，已道盡河豚好處。聖俞平生苦於吟詠，以閑遠古淡爲意，故其構思極艱。此詩作於罇俎之間，筆力雄贍，頃刻而成，遂爲絕唱。(文淵閣四庫全書本《六一詩話》第4條)

17) 梅堯臣의 《宛陵集》 卷5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의 정식 제목이다.

에게 칭송을 듣는바, 옛날 말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인데 그도 역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단 적어 두기만 하나니 틀림없이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¹⁸⁾

여기에 인용된 이백의 시는 ‘太瘦生’·‘作麼生’·‘何似生’ 중의 ‘生’과 같이 당시에 시어로 사용되고 있던 어조사를 소개하는 데 이용된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

제8조에서 두보의 시를 인용한 것은 당시 문인들의 사교 활동에서 비롯되었다.

舍人 陳從易는 時文이 한창 성행하고 있을 때 유독 순수 유학자라는 점과 옛날 학문으로 칭송받았는데 그의 시는 대부분 白樂天과 유사하다. 대체로 楊億과 劉筠이 창화하여 《西崑集》이 유행하면서부터 후진 학자들이 다투어 그것을 본받음으로써 시풍이 일변했으니 그것을 서곤체라고 했다. 이로부터 당나라 명인들의 여러 시집이 거의 사라지고 유행하지 않았다. 陳公은 그때 우연히 杜甫 시집의 옛날 판본을 손에 넣었는데 문자가 탈락된 것과 잘못된 것이 많아 <채도위를 전송하다(送蔡都尉)>라는 시에 “身輕一鳥”라는 말이 있는데 그 밑에 한 글자가 빠져 있었다. 진공이 이로 인하여 여러 손님들과 함께 각자 한 글자씩을 보충해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빠르다(疾)’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진다(落)’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날아오른다(起)’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려온다(下)’라고 하여 확정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선본을 하나 구했는데 바로 “身輕一鳥過(새 한 마리 지나가듯 몸이 가볍다’라는 뜻)였다. 진공이 탄복하며 비록 한 글자지만 여러 사람이 애를 써도 따를 수가 없다고 여겼다.¹⁹⁾

18) 李白<戲杜甫>云: “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 ‘太瘦生’, 唐人語也, 至今猶以‘生’爲語助, 如‘作麼生’·‘何似生’之類是也. 陶尚書教嘗曰: “尖帽簞子卑凡厮, 短鞦靴兒未厥兵.” ‘未厥’, 亦當時語. 余天聖·景祐間已聞此句, 時去陶公尚未遠, 人皆莫曉其義. 王原叔博學多聞, 見稱於世, 最爲多識前言者, 亦云不知爲何說也. 第記之, 必有知者耳.(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第17條)

19) 陳舍人從易, 當時文方盛之際, 獨以醇儒古學見稱, 其詩多類白樂天. 蓋自楊劉唱和, 《西崑集》行, 後進學者爭效之, 風雅一變, 謂西崑體. 繇是唐賢諸詩集, 幾廢而不行. 陳公時偶得杜集舊本, 文多脫誤, 至<送蔡都尉>詩云: “身輕一鳥”, 其

이것은 당시 문인들이 모여서 두보의 〈채희로 도위가 농우로 돌아가는 것을 전송하고 고삼십오 서기에게 부치다(送蔡希魯都尉還隴右, 寄高三十五書記)〉²⁰라는 시 가운데 “身輕一鳥” 뒤의 잘 안 보이는 글자 하나를 각자 보충해 본 일화를 통해 두보의 시어 사용이 절묘함을 칭송했다.

이처럼 唐代의 시인들 중에서 초당 시인의 시는 전혀 인용하지 않고, 성당 시인 중에서는 구양수 當時의 시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던 이백과 두보의 시만 인용한 반면, 중·만당 시인의 시는 상당히 인용한 것 역시 시대가 비교적 가까운 만큼 시대 상황이 비슷하고 시대 상황에 대한 공감도가 높기 때문에 구양수를 비롯한 當時 문인들의 관심사가 되기에 충분했고 따라서 그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Ⅲ. 詩句의 부분 인용 양상

《육일시화》 총 28條 가운데 시구를 전혀 인용하지 않은 2조를 제외한 나머지 26조를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全篇을 온전히 다 인용한 경우는 1회뿐이고 나머지 52회는 일부 시구만 부분적으로 인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인용한 시구는 다시 1구짜리, 2구짜리, 4구짜리, 24구짜리가 있는데, 이 가운데 2구짜리가 46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제1조를 보자.

李文正公이 〈永昌陵挽歌辭〉를 진상하여 “옥을 바치며 다섯 번 하늘님을 뵈셨고, 누각에 남시어 세 차례 행복한 왕을 거두셨네(奠玉五回朝上帝, 御

下脫一字. 陳公因與數客各用一字補之. 或云‘疾’, 或云‘落’, 或云‘起’, 或云‘下’, 莫能定. 其後得一善本, 乃是“身輕一鳥過”. 陳公歎服, 以爲雖一字, 諸君亦不能到也.(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第8條)

20) 宋代 無名氏의 《集千家註杜工部詩集》 卷2, 宋人 黃希의 《補注杜詩》 卷18, 宋人 郭知達의 《九家集注杜詩》 卷18 등에 모두 이 시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樓三度納降王)”라고 했다. 당시 여러 신하들이 다들 만가를 바쳤지만 이문정공의 시가 가장 출중했다. 소위 ‘세 명의 항복한 왕’이란 廣南의 劉鋹, 西蜀의 孟昶 및 江南의 李後主이다. 다섯 번 하느님을 뵈셨다는 말은 착오이다. 태조의 건륭(960~963) 연간이 4년 다 지난 뒤 이듬해에 처음으로 郊祀를 지내고 연호를 건덕(963~968)으로 바꾸었으며, 건덕 6년(968)에 이르러 다시 교사를 지내고 연호를 개보(968~976)로 바꾸었고, 개보 5년(972)에 또 교사를 지냈으나 연호를 바꾸지 않았다. 개보 9년(976)에는 이미 강남 지방을 평정하여 4월에 대대적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西京에서 감사의 뜻을 고했다. 그러니 옥을 들어 바치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이 사실은 네 번이다. 李公은 당시 사람이라 틀릴 리가 없으니 전하는 사람이 실수로 다섯 번이라고 했을 것이다.²¹⁾

李昉이 송나라 태조의 승하를 애도하여 지은 〈永昌陵挽歌辭〉 중에서 “옥을 바치며 다섯 번 하느님을 뵈셨고, 누각에 납시어 세 차례 항복한 왕을 거두셨네(奠玉五回朝上帝, 御樓三度納降王)”라고 한 聯은 태조가 생전에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린 것이 다섯 번이고 十國 왕들의 투항을 접수한 것이 세 번이라는 뜻으로 앞 구절과 뒤 구절이 대우를 잘 이루고 있는데, 구양수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 태조가 생전에 다섯 번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 구절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뒤 구절은 빼고 앞 구절만 인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이 聯의 대우가 얼마나 정교한지를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여러 신하들이 다들 만가를 바쳤지만 이문정공의 시가 가장 출중했다”라는 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이 條는 태조가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올린 것이 다섯 번이 아니라 네 번임을

21) 李文正公進〈永昌陵挽歌辭〉云：“奠玉五回朝上帝，御樓三度納降王。”當時羣臣皆進，而公詩最爲首出。所謂三降王者，廣南劉鋹·西蜀孟昶及江南李後主是也。若五朝上帝則誤矣。太祖建隆盡四年，明年初郊，改元乾德。至六年再郊，改元開寶。開寶五年又郊，而不改元。九年已平江南，四月大雩，告謝于西京。蓋執玉祀天者，實四也。李公當時人，必不繆，乃傳者誤云五耳。(文淵閣四庫全書本《六一詩話》第1條)

밝히는 데에 주목적이 있지 않고 이방의 만가가 가장 출중했음을 밝히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제19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松江에 새로 긴 다리를 지었는데 규모가 크고 화려해서 이전에 없던 것이다. 蘇子美의 시 <새 다리에서 달을 보다(新橋對月)>에서 말한 “구름 끝에서 번쩍번쩍 황금 월병이 나오고, 깊숙한 수면에 무지개가 누웠도다(雲頭灑灑開金餅, 水面沈沈臥彩虹)”는 이것을 읊은 것이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다리는 이 구절이 아니고는 그 웅장한 면모를 제대로 칭송하지 못한다고들 했다. 소자미의 형 蘇舜元은 자가 才翁인데 그도 역시 시가 강건하여 멋진 구절이 많았지만 세상에 전하는 것이 유독 적다. 그와 소자미의 <자각사 연구(紫閣寺聯句)>는 韓愈와 孟郊의 연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한탄스럽게도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다.²²⁾

이것은 북송 시인 蘇舜欽이 松江에 놓인 긴 다리, 즉 垂虹橋에 한가위의 보름달이 흰하게 비치는 모습을 노래한 <중추절에 송강의 새 다리에서 달을 보며 유 현령의 작품에 화답하다(中秋松江新橋對月和柳令之作)>²³⁾가 수홍교의 웅장한 자태를 얼마나 잘 묘사했는지를 말한 것이다. 중추절을 맞아 당시 江南第一長橋라는 영예를 안고 있던 다리인 垂虹橋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구름에 가려졌던 보름달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고 있고, 고개를 숙여 강을 보니 수면 깊숙이 무지개 같은 다리가 잠겨 있다. 이런 멋진 경관을 제대로 묘사하려면 “구름 끝에서 번쩍번쩍 황금 월병이 나오고, 깊숙한 수면에 무지개가 누웠도다(雲頭灑灑開金餅, 水面沈沈臥彩虹)” 중의 어느 한 구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한 聯을 다 제시해야 내용상으로도 형식상으로도 당시 사람들이 “이 다리는 이 구절이 아

22) 松江新作長橋, 制度宏麗, 前世所未有. 蘇子美<新橋對月>詩所謂“雲頭灑灑開金餅, 水面沈沈臥彩虹”者是也. 時謂此橋非此句雄偉不能稱也. 子美兄舜元, 字才翁, 詩亦適勁多佳句, 而世獨罕傳. 其與子美<紫閣寺聯句>, 無媿韓孟也, 恨不得盡見之耳.(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第19條)

23) 蘇舜欽의 《蘇學士集》 卷7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의 정식 제목이다.

니고는 그 웅장한 면모를 제대로 칭송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정도로 높이 평가받은 이 시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2구짜리 인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보나 형식상으로 보나 한 聯이 한 구절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고, 그보다 더 길게 인용하면 또 번잡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聯 단위로 인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간편하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1구를 인용한 경우는 모두 4회이다. 먼저 安鴻漸이 鄭谷의 시를 빌려 승려 贊寧을 조롱한 일화를 소개한 제6조를 보자.

뜻 지방 승려 贊寧은 국초에 僧錄이 되었다. 그는 유가 서적을 많이 읽은데다 여러 가지 책을 두루 읽고 기억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저술도 잘했는데 언변이 중형무진이라 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당시 安鴻漸이라는 사람이 있어 문사가 빼어나고 민첩했는데 특히 조롱조로 읊조리기를 좋아했다. 한번은 길을 가다가 찬녕과 승려 몇 명이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안홍점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롱하여 말하기를 “鄭都官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때를 짓는군”이라고 했다. 찬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하기를 “진시황이 미처 과문지 못한 사람들이 왕왕 무리를 이루는군”이라고 했다. 당시 사람들이 다들 그의 민첩한 대응을 찬양했다. 안홍점이 말한 것은 바로 鄭谷의 시에서 “승려는 좋아하나 자주색 옷 입은 승려는 안 좋아하네(愛僧不愛紫衣僧)”라고 한 구절이다.²⁴⁾

송나라 초기 사람 안홍점이 僧錄이라는 僧官을 맡고 있는 찬녕이라는 승려를 조롱하기 위하여 만당 시인 정곡의 시 〈적우승께 부치다(寄獻狄右丞)〉²⁵⁾ 중의 “승려는 좋아하나 자주색 옷 입은 승려는 안 좋아하네(愛僧

24) 吳僧贊寧，國初爲僧錄，頗讀儒書，博覽強記，亦自能撰述，而辭辯縱橫，人莫能屈。時有安鴻漸者，文辭雋敏，尤好嘲詠。嘗街行遇贊寧與數僧相隨，鴻漸指而嘲曰：“鄭都官不愛之徒，時時作隊。”贊寧應聲答曰：“秦始皇末坑之輩，徃往成羣。”時皆善其捷對。鴻漸所道，乃鄭谷詩云：“愛僧不愛紫衣僧”也。(文淵閣四庫全書本《六一詩話》第6條)

25) 鄭谷，〈雲臺編〉卷下

不愛紫衣僧”라는 구절을 빌려서 그를 “鄭都官(鄭谷)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명승을 찾아 짬을 내어 두릉으로 향하니, 승려는 좋아하나 자주색 옷 입은 승려는 안 좋아하네(遂勝偷閒向杜陵, 愛僧不愛紫衣僧)”라고 한 두 구절을 다 인용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시선이 분산되어서 오히려 논지 전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 본 제8조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²⁶⁾ 이 이야기는 시인들이 각자 두보의 시구 가운데 잘 안 보이는 한 글자를 보충해 본 시단의 일화를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두 구절 이상을 인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聯을 다 인용하면 역시 초점이 흐려져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인 “창 놀림이 빨라서 만인이 환호하네(槍急萬人呼)”는 표현이 좀 평범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4구 또는 24구를 인용한 것은 각각 1회씩 있다. 4구를 인용한 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매요신의 시 <복어(河豚魚)>²⁷⁾를 인용한 것인데 이것 역시 온전한 한 편의 절구가 아니고 총 28구에 달하는 오언배율의 일부일 뿐이다. 이에 대하여 구양수는 “그러므로 시를 아는 사람들은 첫머리 두 구절만으로 이미 복어의 장점을 다 말했다고들 한다(故知詩者謂祇破題兩句, 已道盡河豚好處)”라고 하여 시를 잘 아는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전했지만 그 자신은 이 시를 특수한 예로 간주하여 4구를 인용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24구를 인용한 제13조 역시 특수한 예이다. 이것은 매요신 시와 蘇舜欽 시의 각기 다른 개성을 비평하기 위해서 쓴 자신의 시를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길게 인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다만 이것 역시 全篇이 아니고 총 48구 중의 절반에 해당한다.

구양수가 《육일시화》에서 전편을 인용한 시는 오로지 1수뿐이다. 그

26) 주 19) 참조.

27) 주 16) 참조.

것은 16구를 인용한 謝伯初라는 당시 사람의 시이다. 이 시의 전편을 소개한 것은 사백초의 시를 보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구양수가 스스로 밝혀 놓은 만큼, 시단의 일화를 소개한 다른 이야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육일시화》 제23조를 보면 이 이야기를 서술한 구양수의 의도를 알 수 있다.

……景山(사백초의 字)의 시는 매우 많은데 “스스로 국화 심어 들관 풍경을 더하고, 이내 키 큰 대밭으로 옮겨 가을 소리 듣는다(自種黃花添野景, 旋移高竹聽秋聲)나 “園林이 잎을 갈고 매실이 막 익을 때, 사람 없는 연못가 집에서 제비가 날갯짓 배운다(園林換葉梅初熟, 池館無人燕學飛)”와 같은 것은 모두 당나라 때의 저명 인사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벼슬길이 불우하여 끝내 궁곤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의 시는 지금 이미 세상에 보이지 않으며, 그의 집안도 쇠락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가 나에게 시를 부쳐 보낸 것이 대략 35년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것을 외울 수 있다. 그의 인생이 불행한 것도 슬퍼할 만한 일이고 그의 시가 떠돌다가 사라지는 것도 애석해할 만한 일이라 여기에 그의 시를 적어 둔다.……28)

시구를 인용하지 않고 시단의 일화만 소개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제목을 밝힌 것과 제목조차 밝히지 않은 것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제목을 밝혀 놓은 제5조를 보자.

한림학사 蘇子瞻(蘇軾)은 촉 지방 사람이다. 일찍이 涪井監에서 서남쪽

28) ……景山詩頗多, 如“自種黃花添野景, 旋移高竹聽秋聲”, “園林換葉梅初熟, 池館無人燕學飛”之類, 皆無媿於唐諸賢, 而仕宦不偶, 終以困窮而卒. 其詩今已不見於世, 其家亦流落不知所在, 其寄余詩, 殆今三十五年矣, 余猶能誦之. 蓋其人不幸既可哀, 其詩淪棄亦可惜, 因錄於此. 詩曰…….(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第23條) 제23조에 16구가 소개되어 있는 사백초의 시는 宋人 呂祖謙의 《宋文鑑》 卷24와 清人 厲鶚의 《宋詩紀事》 卷11에 전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작품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宋文鑑》에는 제목이 <붓을 휘둘러 이릉의 구양영숙에게 부치다(走筆寄夷陵歐陽永叔)>로 되어 있고, 《宋詩紀事》에는 제목이 <이릉으로 좌천된 구양영숙에게 부치다(寄歐陽永叔謫夷陵)>로 되어 있다.

오랑캐들이 파는 蠻族들의 베로 만든 활집을 얻었는데 그 무너에 梅聖俞의 시 <봄눈(春雪)>이 짜여 있었다. 이 시는 매성유의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절창이 되지는 못했다. 아마 그의 이름이 천하에 떨쳐진 나머지 시를 한 편 읊으면 오랑캐 땅에까지 전해져 이역 사람들도 그것을 이처럼 귀중하게 여긴 것이리라. 소자첨은 내가 매성유를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여겨 그것을 얻어서 나에게 주었다. 우리 집에는 옛날부터 거문고를 하나 소장하고 있었으니 바로 보력 3년(827)에 雷會가 만든 것으로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의 것이다. 그 소리가 마치 종이나 경쇠를 치는 것처럼 낭랑한지라 마침내 이 베를 가지고 다시 거문고 집을 만들었으니 이들 두 가지 물건은 참으로 우리 집의 보배로운 愛玩物이다.²⁹⁾

이 이야기는 蘇軾을 통해 梅堯臣의 시 <봄눈(春雪)>이 蠻族들의 활집 문양으로 사용된 사실을 안 것을 계기로 절친한 친구인 매요신의 시를 칭송한 것이다. 활집으로 썼던 베를 가지고 다시 거문고 집을 만들어 놓고는 애지중지했다고 하니 그가 매요신의 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너무 길기 때문에³⁰⁾ 전편을 다 인용하기는 불편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일부만 인용하기도 적절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경우는 제목을 밝히지 않고는 이야기를 전개하기에 불편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목조차 밝히지 않은 제7조를 보자.

鄭谷은 당나라 말기에 詩名이 자자했거니와 그의 시집을 《雲臺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의 관직만 들어서 ‘鄭都官詩’라고 한다. 그의 시는 의미가 매우 깊고 멋진 구절도 많지만 격조는 그다지 높지 않다. 그것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

29) 蘇子瞻學士，蜀人也。嘗於涪井監得西南夷人所賣蠻布弓衣，其文織成梅聖俞<春雪>詩。此詩在聖俞集中，未爲絕唱，蓋其名重天下，一篇一詠，傳落夷狄，而異域之人貴重之如此耳。子瞻以余尤知聖俞者，得之，因以見遺。余家舊蓄琴一張，乃寶曆三年雷會所斲，距今二百五十年矣。其聲清越如擊金石，遂以此布更爲琴囊，二物眞余家之寶玩也。(文淵閣四庫全書本 《六一詩話》 第5條)

30) 매요신의 《宛陵集》 卷12에 수록되어 있는 <봄눈(春雪)>은 장편 오언시로 22구에 달한다.

바, 나도 어릴 때 그의 시를 암송했는데 지금은 그의 시집이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다. 梅聖俞도 만년에 관직이 도관에 이르렀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劉原父가 농담으로 “성유는 관직이 틀림없이 여기서 그칠 것이다”라고 하여 좌객들이 다들 깜짝 놀랐다. 그러자 유원보가 말하기를 “옛날에 정도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도관이 있도다”라고 하자 매성유가 매우 불쾌해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매성유가 병들어 죽었다. 내가 그의 시집에 서문을 쓰고 《宛陵集》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단지 ‘매도관시’라고만 한다. 농담 한 마디 한 것인데 나중에 결국 과연 그렇게 되고 말았으니 한탄스러운 일이다.³¹⁾

都官郎中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 鄭谷의 시를 속칭 ‘鄭都官詩’라고 하고 都官員外郎을 끝으로 세상을 떠난 梅聖俞의 시를 속칭 ‘梅都官詩’라고 하게 된 경위와 그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이 글에서는 시의 구절을 인용하기가 적절치 않음은 물론, 시의 제목을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요컨대, 시화를 서술할 때 몇 구절씩 인용할 것인지는 이야기 전개와 논지 전달의 효율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구양수는 간편하면서도 완성도가 높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2구, 즉 한 聯씩 인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IV. 逸詩 보존 양상

《육일시화》에 인용된 詩句는 각 시인의 別集이나 각종 總集에 전편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먼저 각 시인의 개

31) 鄭谷詩名盛於唐末，號《雲臺編》，而世俗但稱其官，爲‘鄭都官詩’。其詩極有意思，亦多佳句，但其格不甚高，以其易曉，人家多以教小兒，余爲兒時猶誦之，今其集不行於世矣。梅聖俞晚年，官亦至都官，一日會飲余家，劉原父戲之曰：“聖俞官必止於此。”坐客皆驚。原父曰：“昔有鄭都官，今有梅都官也。”聖俞頗不樂。未幾，聖俞病卒。余爲序其詩爲《宛陵集》，而今人但謂之‘梅都官詩’。一言之謔，後遂果然，斯可歎也。(文淵閣四庫全書本《六一詩話》第7條)

인 시집, 즉 별집에 수록되어 있는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條	시대	시인	제목	인용된 시구	수록된 별집
4	宋	梅堯臣	河豚魚	春洲生荻芽(총 4구)	《宛陵集》
6	唐	鄭谷	(不明示)	愛僧不愛紫衣僧	《雲臺編》
8	唐	杜甫	送蔡都尉	身輕一鳥過	《九家集注杜詩》
10	唐	孟郊	移居	借車載家具, 家具少於車.	《孟東野詩集》
			謝人惠炭	暖得曲身成直身	《孟東野詩集》
	唐	賈島	(不明示)	鬢邊雖有絲, 不堪織寒衣.	《長江集》
			朝飢	坐聞西牀琴, 凍折兩三絃.	《長江集》
11	唐	周朴	(不明示)	風暖鳥聲碎, 日高花影重.	《唐風集》 ³²⁾
			(不明示)	曉來山鳥鬧, 雨過杏花稀.	《姚少監詩集》 ³³⁾
12	唐	賈島	(不明示)	竹籠拾山果, 瓦餅擔石泉.	《長江集》
	唐	姚合	(不明示)	馬隨山鹿放, 雞逐野禽棲.	《姚少監詩集》
	唐	賈島	(不明示)	怪禽啼曠野, 落日恐行人.	《長江集》

32) 《唐風集》은 만당 시인 杜荀鶴의 시집이다. 이 시는 《唐風集》 卷1을 비롯하여, 唐人 韋毅이 편찬한 《才調集》 卷8, 宋人 趙師秀가 편찬한 《衆妙集》, 元人 方回가 편찬한 《瀛奎律髓》 卷31, 明人 高棅이 편찬한 《唐詩品彙》 卷69 등 주요 시집에 모두 두순학의 〈불 궁전에서 의 원망(春宮怨)〉으로 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서 宋人 阮閱은 《詩話總龜》 卷6에서 “바람이 따스하여 새소리가 부서지고, 해가 높이 떠올라 꽃 그림자 포개졌다”는 두순학의 문집에 전편이 있고 일찍이 ‘두순학의 시 300수는 이 한 연 속에 묘미가 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바람이 따스하여 새소리가 부서지고, 해가 높이 떠올라 꽃 그림자 포개졌다’를 이제 문충공(구양수)은 바로 주박의 시라고 한다.(風暖鳥聲

條	시대	시인	제목	인용된 시구	수록된 별집
13	宋	歐陽修	水谷夜行	子美氣尤雄 ……(총 24구)	《文忠集》
16	唐	王建	宮詞一百首	內中數日無呼喚, 傳得滕王蛺蝶圖.	《王司馬集》
17	唐	李白	戲杜甫	借問別來太瘦生, 總爲從前作詩苦.	《李太白集注》
18	唐	賈島	哭僧	寫留行道影, 焚却坐禪身.	《長江集》
			(不明示)	步隨青山影, 坐學白塔骨.	《長江集》
			(不明示)	獨行潭底影, 數息樹邊身.	《長江集》
19	宋	蘇舜欽	新橋對月	雲頭灑灑開金餅, 水面沈沈卧彩虹.	《蘇學士集》
20	宋	梅堯臣	(不明示)	寒魚猶著底, 白鷺已飛前.	《宛陵集》
			(不明示)	絮暖鶯魚繁, 露添蓴菜紫.	《宛陵集》
23	宋	歐陽修	(不明示)	參軍春思亂如雲, 白髮題詩愁送春.	《文忠集》
25	唐	王建	霓裳詞	弟子部中留一色, 聽風聽水作霓裳.	《王司馬集》
27	唐	韓愈	(不明示)	多情懷酒伴, 餘事作詩人.	《五百家注昌黎文集》

위의 표를 통하여 총 24회 인용된 당송 시인 12명의 시가 각 시인의 개인 시집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각 시인의 개인 시집

碎, 日高花影重.’ 杜荀鶴集有全篇, 嘗有云: ‘杜詩三百首妙在一聯中.’ ‘風煖鳥聲碎, 日高花影重.’ 今文忠乃以爲周朴詩”라며 의아해했다.

- 33) 《姚少監詩集》은 만당 시인姚合의 시집이다. 이 시는 《姚少監詩集》 卷6, 方回的《瀛奎律髓》 卷23, 《御定全唐詩》 卷498 등에 요함의 〈산속에서의 술회(山中述懷)〉로 되어 있다.

에 전편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는 시들은 구양수의 《육일시화》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수집이 가능했다는 뜻이니 설사 《육일시화》에 인용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후세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육일시화》에 인용된 시구 가운데 여러 사람의 시를 두루 수록한 시선집, 즉 총집류에 전편이 온전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條	시대	시인	제목	인용된 시구	수록된 총집
1	宋	李昉	永昌陵挽歌辭	奠玉五回朝上帝, 御樓三度納降王.	清 陳焯 《宋元詩會》
9	宋	(宇昭) ³⁴	(不明示)	馬放降來地, 鵬盤戰後雲.	元 方回 《瀛奎律髓》
		(希晝) ³⁵	(不明示)	春生桂嶺外, 人在海門西.	明 釋正勉 《古今禪藻集》
12	唐	嚴維	(不明示)	柳塘春水慢, 花塢夕陽遲.	宋 李昉 《文苑英華》
		溫庭筠	(不明示)	雞聲茅店月, 人迹板橋霜.	宋 周弼 《三體唐詩》
15	唐	(貫休) ³⁶	詠詩者	盡日覓不得, 有時還自來.	宋 李昉 《唐僧弘秀集》
18	宋	(王操) ³⁷	(不明示)	袖中諫草朝天去, 頭上宮花侍宴歸.	宋 呂祖謙 《宋文鑑》
	唐	(張繼) ³⁸	(不明示)	姑蘇臺下寒山寺, 半夜鐘聲到客船.	唐 高仲武 《中興間氣集》
23	宋	謝伯初	(不明示)	長官衫色江波綠, 學士文華蜀錦張.	宋 呂祖謙 《宋文鑑》
			(不明示)	自種黃花添野景, 旋移高竹聽秋聲.	宋 呂祖謙 《宋文鑑》
			(不明示)	江流作險似瞿塘 …… (총16구)	宋 呂祖謙 《宋文鑑》

34) ()로 표시한 것은 《육일시화》에 시인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필자가

이 표는 《육일시화》에 총 11회 인용된 당송 시인 9명의 시가 각종 총집에 온전히 수록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시들은 별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총집에만 전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총집에 전편이 수록되어 있는 시 역시 편자가 다른 자료를 통해 수집할 수 있었다는 뜻이므로 《육일시화》에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사백초의 시 16구는 총집인 《宋文鑑》과 《宋詩紀事》에 전편이 수록되어 있기는 하지만³⁹⁾ 《송문감》보다 훨씬 늦게 간행된 《송시기사》에 “六一詩話”라고 출처를 밝혀 놓고 있어 이 시가 《육일시화》 덕분에 보존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청대 사람인 厲鶚이 《송시기사》를 편찬할 때 송대에 간행된 150권짜리의 대형 총집인 《송문감》을 참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 그가 참고한 판본의 《송문감》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별집이나 총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 《육일시화》 이후에 간행된 각종 詩話類의 典籍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런 예 역시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條	시대	시인	제목	인용된 시구	수록된 주요 필기류 전적
2	宋	미상	(不明示)	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	宋 阮閱 《詩話總龜》
3	宋	미상	(不明示)	賣花擔上看桃李, 拍酒樓頭聽管絃.	宋 曾慥 《類說》
		미상	(不明示)	正夢寐中行十里, 不言語處喫三杯.	宋 曾慥 《類說》

다른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여 보충한 것이다. 주 (7) 참조.

35) 주 8) 참조.

36) 주 4) 참조.

37) 주 9) 참조.

38) 주 3) 참조.

39) 주 28) 참조.

條	시대	시인	제목	인용된 시구	수록된 주요 필기류 전적
9	宋	미상	(不明示)	張康渾裹馬, 許洞開裝妻.	宋 阮閱 《詩話總龜》
12	미상	미상	(不明示)	縣古槐根出, 官清馬骨高.	宋 曾慥 《類說》
14	宋	呂蒙正	(不明示)	挑盡寒燈夢不成	宋 孔平仲 《談苑》
15	宋	미상	贈漁父	眼前不見市朝事, 耳畔惟聞風水聲.	宋 張鑑 《仕學規範》
17	五代	陶穀	(不明示)	尖簷帽子卑凡厮, 短鞞靴兒末厥兵.	宋 曾慥 《類說》
21	宋	劉筠	新蟬	風來玉宇烏先轉, 露下金莖鶴未知.	宋 江少虞 《事實類苑》
			(不明示)	峭帆橫渡官橋柳, 疊鼓驚飛海岸鷗.	宋 江少虞 《事實類苑》
22	宋	錢惟演	(不明示)	日上故陵煙漠漠, 春歸空苑水潺潺.	宋 江少虞 《事實類苑》
		鄭文寶	(不明示)	水暖鳧鷖行哺子, 溪深桃李卧開花.	宋 阮閱 《詩話總龜》
23	宋	謝伯初	(不明示)	多情未老已白髮, 野思到春如亂雲.	元 劉壘 《隱居通議》
		謝伯初	(不明示)	園林換葉梅初熟, 池館無人燕學飛.	宋 阮閱 《詩話總龜》
24	宋	石延年	(不明示)	鶯聲不逐春光老, 花影長隨日脚流.	宋 江少虞 《事實類苑》
26	宋	趙師民	(不明示)	麥天晨氣潤, 槐夏午陰清.	宋 江少虞 《事實類苑》
			(不明示)	曉鶯林外千聲囀, 芳草堦前一尺長.	宋 江少虞 《事實類苑》
28	宋	宋祁	采侯	色映珊瑚雲爛, 聲迎羽月遲.	宋 張鑑 《仕學規範》

《육일시화》에 인용되어 있는 시구 가운데 각 시인의 별집이나 각종 총집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시화류의 다른 典籍에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는 모두 18회 있는데, 위의 표는 사고전서 중에서 《육일시화》에 인용된 시구가 수록되어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대표적 전적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 시구들은 독립된 시로 수록되어 있지도 않고 전편이 다 수록되어 있지도 않다. 이 시화류 전적의 서술은 《육일시화》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든 모두 《육일시화》를 轉載한 것일 가능성이 크며, 적어도 《육일시화》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明人 陶宗儀의 《說郛》와 宋人 阮閱의 《詩話總龜》 및 宋人 曾慥의 《類說》에 수록되어 있는 제2조의 내용을 《육일시화》 원문과 비교해 보자.

《육일시화》: 인종 시기에 몇몇 고관들이 시로써 이름났는데 그들은 항상 白樂天體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어가 대개 평이한 데서 얻어졌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처자를 살찌우는 봉록은 있건마는, 아전과 백성에게 미칠 은혜는 없네(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라는 연이 있는지라 그를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 “어제 한길에서 짐수레 한 대와 맞닥뜨렸는데 실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윈 소가 몹시 힘들어했으니 이것이 어찌 그대가 ‘처자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겠소?”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⁴⁰⁾

《說郛》: 인종 시기에 몇몇 고관들이 시로써 이름났는데 그들은 항상 白樂天體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어가 대개 평이한 데서 얻어졌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처자를 살찌우는 봉록은 있건마는, 아전과 백성에게 미칠 은혜는 없네(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라는 연이 있는지라 그를 희롱하는 사람이 있어 “어제 한길에서 짐수레 한 대와 맞닥뜨렸는데 실은 짐이

40) 仁宗朝, 有數達官, 以詩知名. 常慕白樂天體, 故其語多得於容易. 嘗有一聯云: “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 有戲之者云: “昨日通衢遇一輜駟車, 載極重, 而羸牛甚苦, 豈非足下‘肥妻子’乎?” 聞者傳以爲笑. [宋 歐陽修, 《六一詩話》(文淵閣四庫全書本) 第2條]

너무 무거워서 여윈 소가 몹시 힘들어했으니 이것이 어찌 그대가 ‘처자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겠소?”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⁴¹⁾

《詩話總龜》: 지화(1054~1056) 연간에 몇몇 고관들이 시로써 이름났는데 그들은 항상 樂天體를 본받았기 때문에 대개 평이한 데서 얻어졌다. 일찍이 어떤 사람이 “처자를 살찌우는 봉록은 있건마는, 아전과 백성에게 미칠 은혜는 없네(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라는 연이 있는지라 어떤 사람이 그를 희롱하여 “어제 한길에서 짐수레 한 대와 맞닥뜨렸는데 실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짐을 끄는 소가 몹시 힘들어했으니 이것이 어찌 그대의 ‘처자’가 아니겠소?”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서로 전하며 웃음거리로 삼았다.⁴²⁾

《類說》: 인종 때 어느 고관의 시에 “처자를 살찌우는 봉록은 있건마는, 아전과 백성에게 미칠 은혜는 없네(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라고 했는데, 그를 희롱하여 “한길에서 짐수레 한 대와 맞닥뜨렸는데 실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여윈 소가 몹시 힘들어했으니 이것이 어찌 그대의 ‘처자’가 아니겠소?”라고 했다.⁴³⁾

文淵閣四庫全書本 《說郛》 卷82上 〈六一居士詩話〉에는 구양수의 《육일시화》 全文이 그대로 다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인 제2조는 문연각사고전서본 《육일시화》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이에 비해 문연각

41) 仁宗朝, 有數達官, 以詩知名. 常慕白樂天體, 故其語多得於容易. 嘗有一聯云: “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 有戲之者云: “昨日通衢遇一輜駟車, 載極重, 而羸牛甚苦, 豈非足下‘肥妻子’乎?” 聞者傳以爲笑. [元 陶宗儀, 《說郛》(文淵閣四庫全書本) 卷82上 〈六一居士詩話〉]

42) 至和間, 有數達官, 以詩知名. 常慕樂天體, 多得於容易. 曾有一聯云: “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 有人戲之曰: “昨日通衢遇一輜駟車, 載極重, 羸牛甚苦, 豈非足下‘妻子’乎? 聞者傳以爲笑. 歐公詩話[宋 阮閱, 《詩話總龜》(文淵閣四庫全書本) 卷36]

43) 仁宗時, 有達官詩云: “有祿肥妻子, 無恩及吏民.” 戲曰: “通衢遇一輜駟車, 載極重, 羸牛甚苦, 豈非足下‘妻子’乎?” [宋 曾慥, 《類說》(文淵閣四庫全書本) 卷56]

사고전서본 《詩話總龜》 卷36에 수록된 것은 글자가 조금씩 다른 곳이 몇 군데 있다. ‘仁宗朝’가 ‘至和間’으로 바뀌었고, ‘白樂天體’가 ‘樂天體’로 바뀌었으며, ‘故其語’가 생략되었다. 또 ‘嘗’이 ‘曾’으로, ‘有戲之者云’이 ‘有人戲之曰’로, ‘而羸牛’가 ‘羸牛’로, ‘肥妻子’가 ‘妻子’로 바뀌었다. 《시화총귀》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이처럼 원래의 《육일시화》와 글자가 다소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끄트머리에 ‘歐公詩話’라는 주석이 붙어 있으므로 《육일시화》에서 전제된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에 비해 문연각사고전서본 《類說》 卷56의 경우는 내용이 많이 축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歐公詩話》라는 篇名 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육일시화》에 의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육일시화》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서 《육일시화》와 완전히 같거나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적들이 《육일시화》의 내용을 전제한 것이거나 《육일시화》에 의거하여 서술한 것이라면 《육일시화》에 인용된 시구들은 《육일시화》가 바로 그것을 보존한 최초의 전적이라는 뜻이 된다. 이런 시구들은 말하자면 《육일시화》 덕분에 후세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니 《육일시화》는 이들 逸詩를 보존하는 데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 셈이다.

V. 결론

이상과 같이 구양수 《육일시화》의 시가 인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시기적으로 볼 때 송대의 시가 많고 당대의 시가 적으며, 당대의 시 중에도 中·晩唐의 시가 많고 初·盛唐의 시가 적다. 그리고 당대 이전의 시는 한 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양수 자신이 《육일시화》의 저술 동기를 ‘한담 거리의 제공(資閑談)’으로 규정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는 시대적 동질성, 지역적 동질성, 감정적

동질성 등에 기초를 두고 이루어지는지라 가까운 시대의 시인이나 시일수록 이야깃거리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둘째, 전편을 인용한 경우는 謝伯初의 시 한 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분 인용인데 그 중에서 두 구절, 즉 한 聯씩 인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육일시화》가 비록 시에 대하여 단편적인 비평을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를 비평하는 데에 주목적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담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는 글에서는 아무래도 초점이 될 만한 부분만 인용하여 논지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터인데, 한 聯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나 완성도가 가장 높으면 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두 구절씩 인용한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육일시화》에 인용된 시구들 가운데에는 별집이나 총집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육일시화》 및 《육일시화》를 바탕으로 그것을 전채하거나 표현을 좀 바꾸어 서술한 몇몇 시화류의 전적에만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은 구양수가 《육일시화》에서 소개하지 않았다면 逸失되어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육일시화》는 逸詩 保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쉽게도 두 구절 내지 몇 구절씩만 인용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편을 보존하지는 못하고 일부 빼어난 구절만 보존하고 있다.

요컨대, 《육일시화》는 전문적인 시가비평서와는 달리 이야기 형식이라는 양식적 특성 때문에 작자와 가까운 시대, 작자와 가까운 사람의 시를 많이 인용했으며, 이야기하려는 시를 전부 인용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초점이 될 만한 것만 부분적으로 인용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육일시화》는 상당수의 자칫하면 逸失되어 버리고 말았을 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逸詩 보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References >

1. Beijing Daxue. *Quansongshi*. Beijing Daxue Press, 1991
2. Chen Si. *Liangsong Mingxian Xiaoji*. Wenyuange Sikuquanshu
3. Chen Zhuo. *Songyuan Shihui*. Wenyuange Sikuquanshu
4. Du Fu. *Jiuji Jizhu Dushi*. Wenyuange Sikuquanshu
5. Du Xunhe. *Tangfengji*. Wenyuange Sikuquanshu
6. Fang Hui. *Yingkui Lüsü*. Wenyuange Sikuquanshu
7. Fu Dayong. *Gujin Shiwen Leiju Waiji*. Wenyuange Sikuquanshu
8. Gao Bing. *Tangshi Pinhui*. Wenyuange Sikuquanshu
9. Gao Zhongwu. *Zhongxingjianqiji*. Wenyuange Sikuquanshu
10. Han Yu. *Wubaijizhu Changli Wenji*. Wenyuange Sikuquanshu
11. He Wenhuan, Kim Kouson. *Lidai Shihua*. Somyung Press, 2013
12. Jia Dao. *Changjiangji*. Wenyuange Sikuquanshu
13. Jiang Shaoyu. *Shishi Leiyuan*. Wenyuange Sikuquanshu
14. Kim Kouson. "Creative cause and significance of Liu-yi Poetic Talks". *The Study of China* Vol.64, (2015)
15. Kong Pingzhong. *Tanyuan*. Wenyuange Sikuquanshu
16. Li Bai. *Litaibaijizhu*. Wenyuange Sikuquanshu
17. Li Dongyang. *Huailutang Shihua*. Wenyuange Sikuquanshu
18. Li E. *Songshi Jishi*. Wenyuange Sikuquanshu
19. Li Fang. *Wenyuan Yinghua*. Wenyuange Sikuquanshu
20. Li Gong/ *Tangsenghongxiuji*. Wenyuange Sikuquanshu
21. Liu Xun. *Yinju Tongyi*. Wenyuange Sikuquanshu
22. Liu Yuyi. *Shanxi Tongzhi*. Wenyuange Sikuquanshu
23. Lu Zuqian. *Songwenjian*. Wenyuange Sikuquanshu
24. Mei Yaochen. *Wanlingji*. Wenyuange Sikuquanshu

25. Meng Jiao. *Mengdongye Shiji*. Wenyuange Sikuquanshu
26. Noh Jangsi. "A study on *Liuyi Shihua*". *Journal of Kyungju College* Vol.12, 1997
27. Noh Jangsi. "Ouyang Xiu's viewpoint on literature reflected in *Liuyi Shihua*". *Journal of Chinese Studies* Vol.48, 2003
28. Ouyang Xiu. *Liuyi Shihua*. Wenyuange Sikuquanshu0
29. Ouyang Xiu. *Wenzhongji*. Wenyuange Sikuquanshu
30. Ouyang Xiu & Shi Huihong(Huang Jinde). *Liuyi Shihua & Lengzhai Yehua*. Fenghuang Press, 2009
31. Ouyang Xiu & Sima Guang(Ke Bing). *Liuyi Shihua & Wengong Xushihua*, Zhonghuashuju, 2014
32. Peng Dingqiu. *Yuding Quantangshi*. Wenyuange Sikuquanshu
33. Ruan Yue. *Shihua Zonggui*. Wenyuange Sikuquanshu
34. Shi Zhengmian. *Gujinchanzaoji*. Wenyuange Sikuquanshu
35. Su Shunqin. *Suxueshiji*. Wenyuange Sikuquanshu
36. Tao Zongyi. *Shuofu*. Wenyuange Sikuquanshu
37. Toyohuku Genji. "Translation and Annotation of Rokuyichi Siwa" 1~5. *Mukogawa Kokubun* Vol.16~20, (1979)
38. Unidentified person. *Hanyuan Xinshu*. Wenyuange Sikuquanshu
39. Wang Jian. *Wangsimaji*. Wenyuange Sikuquanshu
40. Wei Hu. *Caidiaoji*. Wenyuange Sikuquanshu
41. Yan Can. *Shiji*. Wenyuange Sikuquanshu
42. Yao He. *Yaoshaojian Shiji*. Wenyuange Sikuquanshu
43. Zeng Zao. *Leishuo*. Wenyuange Sikuquanshu
44. Zhang Zi. *Shixue Guifan*. Wenyuange Sikuquanshu
45. Zhao Shixiu. *Zhongmiaoji*. Wenyuange Sikuquanshu
46. Zheng Gu. *Yuntaibian*. Wenyuange Sikuquanshu
47. Zhou Bi. *Santi Tangshi*. Wenyuange Sikuquanshu

< 참고문헌 >

1.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編,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1.
2. 陳思, 《兩宋名賢小集》, 文淵閣四庫全書本
3. 陳焯, 《宋元詩會》, 文淵閣四庫全書本
4. 杜甫, 《九家集注杜詩》, 文淵閣四庫全書本
5. 杜荀鶴, 《唐風集》, 文淵閣四庫全書本
6. 方回, 《瀛奎律髓》, 文淵閣四庫全書本
7. 富大用, 《古今事文類聚外集》, 文淵閣四庫全書本
8. 高棅, 《唐詩品彙》, 文淵閣四庫全書本
9. 高仲武, 《中興間氣集》, 文淵閣四庫全書本
10. 韓愈, 《五百家注昌黎文集》, 文淵閣四庫全書本
11. 何文煥/김규선, 《歷代詩話》, 소명출판, 2013
12. 賈島, 《長江集》, 文淵閣四庫全書本
13. 江少虞, 《事實類苑》, 文淵閣四庫全書本
14. 김규선, 〈六一詩話의 형성 원인과 意義〉, 《中國研究》 제64권, 2015
15. 孔平仲, 《談苑》, 文淵閣四庫全書本
16. 李白, 《李太白集注》, 文淵閣四庫全書本
17. 李東陽, 《懷麓堂詩話》, 文淵閣四庫全書本
18. 厲鶚, 《宋詩紀事》, 文淵閣四庫全書本
19. 李昉等, 《文苑英華》, 文淵閣四庫全書本
20. 李裊, 《唐僧弘秀集》, 文淵閣四庫全書本
21. 劉燾, 《隱居通議》, 文淵閣四庫全書本
22. 劉於義等, 《陝西通志》, 文淵閣四庫全書本
23. 呂祖謙, 《宋文鑑》, 文淵閣四庫全書本
24. 梅堯臣, 《宛陵集》, 文淵閣四庫全書本
25. 孟郊, 《孟東野詩集》, 文淵閣四庫全書本

26. 노장시, 〈六一詩話小考〉, 《경주전문대학논문집》 제12집, 1997.
27. 노장시, 〈六一詩話에 나타난 歐陽修의 문학관〉, 《中國學報》 제48집, 2003.
28. 歐陽修, 《六一詩話》, 文淵閣四庫全書本
29. 歐陽修, 《文忠集》, 文淵閣四庫全書本
30. 歐陽修·釋惠洪(黃進德), 《六一詩話·冷齋夜話》, 鳳凰出版社, 2009.
31. 歐陽修·司馬光(克冰), 《六一詩話·溫公續詩話》, 中華書局, 2014.
32. 彭定求等, 《御定全唐詩》, 文淵閣四庫全書本
33. 阮閱, 《詩話總龜》, 文淵閣四庫全書本
34. 釋正勉等, 《古今禪藻集》, 文淵閣四庫全書本
35. 蘇舜欽, 《蘇學士集》, 文淵閣四庫全書本
36. 陶宗儀, 《說郛》, 文淵閣四庫全書本
37. 豊福健二, 〈六一詩話譯注〉1~5, 《武庫川國文》 16~20, 1979.
38. 無名氏, 《翰苑新書》, 文淵閣四庫全書本
39. 王建, 《王司馬集》, 文淵閣四庫全書本
40. 韋穀, 《才調集》, 文淵閣四庫全書本
41. 嚴粲, 《詩緝》, 文淵閣四庫全書本
42. 姚合, 《姚少監詩集》, 文淵閣四庫全書本
43. 曾慥, 《類說》, 文淵閣四庫全書本
44. 張鎡, 《仕學規範》, 文淵閣四庫全書本
45. 趙師秀, 《衆妙集》, 文淵閣四庫全書本
46. 鄭谷, 《雲臺編》, 文淵閣四庫全書本
47. 周弼, 《三體唐詩》, 文淵閣四庫全書本

< Abstract >

Liuyi Shihua (六一詩話) is the first note on poets and poetry that was

written by Ouyang Xiu(歐陽修). Ouyang Xiu quoted a lot of poems of other poets who had lived from the Tang(唐) dynasty to the early Song(宋) dynasty in this note. I studied the phrases of poems which was quoted in *Liuyi Shihua* in detail, and found out some aspects of quotation as below.

(1) The poems of the early Song dynasty are more than the poems of the Tang dynasty. I think it is because Ouyang Xiu had more interest in the poems of nearer period to him.

(2) Most of poems were quoted in couplet. I think it is because a couplet is the stablest and most efficient unit to comprehend and introduce a poem.

(3) *Liuyi Shihua* is the original note on poets and poetry that contains a lot of lost poems. These poems maybe disappeared without this note, therefore we can say that *Liuyi Shihua* has the function of storing poems.

Key Words : 歐陽修(Ouyang Xiu), 六一詩話(*Liuyi Shihua*), 詩歌(poem), 引用(quotation), 逸詩(lost poem)